

히로시마의 기지군(基地群) 현황과 과제

미군 재편으로 흔들리는 이와쿠니(岩國)와 해외 파병 거점으로써의 해상자위대 쿠레(呉) 기지

유아사 이치로오· 니따 히데키

(피스 링크 히로시마· 쿠레· 이와쿠니 간사)

세계 최초로 핵무기 공격 목표가 되어 평화 도시를 표방하는 히로시마 주변에 거대한 기지군이 존재하고 패전 후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에 깊이 관여해 오던 현실을 고발하고 기지 없는 히로시마를 만들고자 반기지 반전 활동을 추진하는 시민 그룹으로써 보고한다.

(1) 피폭현(被爆県)에 밀집해 있는 자위대와 미군

패전 후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전쟁의 기반이 될 기지는 없어질 터였다.

하지만 1950 년, 625 전쟁이 발발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G H Q 에 의해

'경찰예비대'라는 이름으로 재군비가 강행되고, 1954 年에는 육해공의 세

자위대가 발족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미군만이 미군만이

일본 각지에 눌러앉았다. 그 결과 구(舊)일본군이 있었던 각지에 자위대와

재일미군이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히로시아 주변도 예외가 아니다.

히로시마의 상징인 원폭돔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 30km 의 원을 그려 보면

그 안에 이상하게 많은 기지군이 밀집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저

히로시마시 안에 육상자위대 제 13 여단 사령부가 있고 추우고쿠/시코쿠

시방을 통괄한다. 매년 북방 기동 훈련 등에 대거 출격하고 있으며, 1992 년

9 월의 캄보디아 P K O, 2005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제 5, 6 차 이라크 파병에도 참가했다.

히로시아 남동쪽에 위치한 쿠레에는 구 해군의 부지를 중심으로 해상자위대의 각종 시설들이 몰려 있고 해상자위대 모두의 1/4 이상이 집중한다. 대형 수송함(탱크양륙함), 보급함(해상 급유가 가능함),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소해정 등 41 척이 쿠레를 모항으로 삼는다. '미소 냉전의 종결'이라는 새로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90 년대 이후에도 음향 측정함, 연습함대, 수송함 배치 등 기지의 종합화와 강화가 비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1 년 10 월, 대 테러 전쟁으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받아 재 테러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같은 해 11 월부터 미군에 연료를 공급하는 보급 작전이 해상자위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그 중심 중의 하나가 쿠레의 해상자위대다. 쿠레의 배치되어 있는 보급함 '토와다'는 여태까지 6 번이나 인도양, 아라비아해로 파견되었다. 더구나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둔 해상 수송 작전에는 쿠레 소속 수송함 '오오수미'가 관여했다.

쿠레 주변에는 미 육군 제 83 아키주키 무기대대에 속하는 탄약고가 있다. 그것은 카와카미(히가시히로시마시), 히로(쿠레시), 아키주키(에다지마정)의

3 군데이고 탄약 저장량은 합계 12 만 t에 이른다. 패전 후의 3 대 전쟁 모두에 계속 탄약을 공급한 탄약고들이다. 1991 년 말의 대원들에 대한 메시지에서 사령관은 "올해 최대의 임무는 걸프 전쟁에 우리 탄약을 공그한 일에 있다. 아키주키는 과거 40 년 동안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라고 말했으며, 걸프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다름이 아닌 탄약고 사령관의 발원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전 직후에는 히로 탄약고에서 사세보로 탄약이 육송되고 전쟁터로 날라졌다. 이 때 히로를 출발한 탄약 수송 트레일러는 히로시마시 내도 지나가서 히로시마는 전쟁터로 가는 탄약의 통과 지점이 되었다. < 걸프 전쟁이 히로시마를 달려 간 > 것이다.

(2) 기지 확장이 끌어올 공모함재기 이와쿠니 주둔

히로시마 남서쪽의 이와쿠니에는 미 해병대 제 1 항공단이 있으며, 호넷 등 57 대의 공격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공모의 공격 능력에 필적하며, 625· 베트남 전쟁에서는 오키나와와 더불어 최전선 기지가 되었다. 현재에는 해외 미군 재편 과정에서 기지 강화를 도말을 곳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카나가와현의 아쓰기 기지에 있는 공모 함재기 59 대를 이와쿠니로 옮기고 N L P 등 이착륙 훈련용 의 항상적인 시설 성치도

계획되어 있다. 이 문제는 ①'장기간에 걸친 전방 전개 능력 확보'(100년 후에도 미군 기지의 도시), ②NLP용 등 항상적인 훈련 시설 제공, ③소음 피해, 추락 위험성 증대, ④훈련 공역 조정과 신설의 가능성('R 5 6 7', 브라운 루트), ⑤원자력 공모 이와쿠니 기항의 가능성(히로시마 눈앞에 '뜨는 원전'이 있음) 등 여러 갈래에 걸친다.

이 배경에는 냉전이 끝난 후인 1994년부터 예산하된 활주로 앞바다 이설이라는 이름의 기지 확장을 위한 매립 사업이 있다. 그 때까지 권력에 순종하던 이와쿠니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참지 못해 2006년 3월에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는 "함재기 주문에 반대하는 시민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의가 나타났으며, 자치체와 시민들의 연계로 국가와 대치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방위·외교는 국가의 전관 사항"이라는 국가에 대하여 "방위·외교라 할지라도 주인공은 시민·자치체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3) 새로운 파병 거점이 됨

이런 식으로 히로시마는 미군과 자위대 기지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 히로시마망에서는 군함이 왔다 갔다 하고 1년에 몇 척씩 미군함이 쿠레항으로 향해 히로시마시 앞바다를 지나간다. 육지에서는 카와카미나

히로에서 요코수카· 미사와· 사세보 등으로 탄약이 트럭으로 수송되고 있다.
하늘에서는 미군과 자위대 군용기가 날아다녀 추락이나 미사일 낙하 사고가 빈발한다.

해외에서 온 평화 운동가들을 안내할 때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히로시마에 이렇게 많은 기지가 있는 줄 몰랐다. 왜 히로시마 사람들은
기지를 없애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라고 불만을 말한다.

시대는 '국제공헌', '유엔에 대한 협력'이 붙어 있으면 자위대도 해외에서 작전 행동에 종사할 수 있기에 이르렀다. 북쪽 선진 공업국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군대를 상주시키려고 하는 힘이 계속 작용하여, 히로시마의 기지는 카이타, 쿠레와 더불어 그 중요한 일익을 맡고 있다. 패전 전의 아시아 침략 거점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또다시 파병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이다. 히로시마는 원폭에 의한 피해를 세계에 호소할 때 그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피폭(被爆)부터 60년이 지나며 그전 반세기도 시야에 넣고 '일본의 근대'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세계 민중들과의 공생과 연대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최저한의 조건일 것이다.